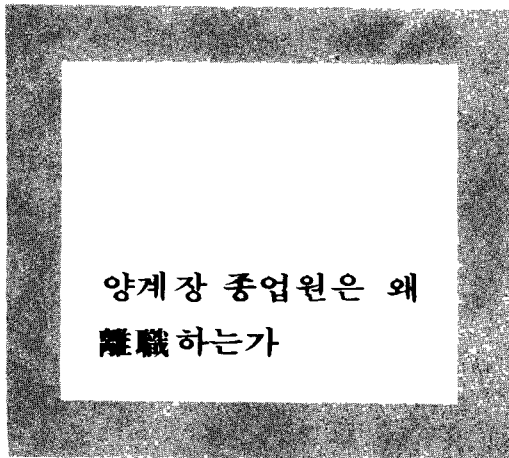




6월의 안테나

解説 : 盧 永 翰



얼마전 주요 일간지 3면지면은 모재벌 조선회사의 산업 스파이 문제로 메워 졌으며 다음날 부터는 이를 해명하는 S 조선회사의 이를 부인하는 광고가 게재되어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런 경우는 산업의 발전 확대에 따른 고급 인력의 파잉 스카웃과 산업 정보의 절취로 인한 물의였으나 이와는 달리 우리 양계 업계에는 직접 탐과 접촉을 가장 많이 하는 관리인의 이직이 늘고 있어 문제가 되

고있다. 본지도 지난 5월호 독자와 함께 란에 서울의 모대규모 종계장에 근무하는 관리인의 심정을 게재하여 다함께 생각하는 기회를 만들기도 하였다. 이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양계를 천직으로 하는 고급 기능인으로 양성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오늘날 참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들의 離職은 다른 양계장으로의 이동이 아닌 대부분이 우리양계를 떠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최근 한국 경영자협회가 섬유, 전자 봉제등 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들의 이직 사유가 임금 이외에도 인간관계 장애성등 非物質的인 것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물론 이들 근로자가 우리 양계업계에 근무하는 근로자와 차이는 있겠으나 대부분 이들 젊은 근로자의 생각이 어떠한 가를 알아 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겠다. 이들 근로자의 離職事由는 △장래성이 없다 25.3% △사장 감독자가 싫거나 동료들과 마음이 맞지 않아서 13.6% △복지 시설이 좋지않아 10.2% △일이 힘들어서

16.1%등 65.2%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 임금의 적어서는 34.8%로 나타나 수입의 극대화만을 추구하던 근로자들의 의식구조가 크게 바뀌어 장래성 인간관계등 비물질적인 노동조건을 추구하는 선진국형으로 변하고 있음을 알 수있다 또入社后 6개월 미만의 이직은 대부분 힘이 들어서 이직하는것으로 22.6%는 3개월미만 3개월에서 6개월은 28.1%이며 전체 이직율의 50.7%가 6개월 미만에 이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모집별로 보면 공개모집의 경우가 安着性이 높아 50.6%가 2年以上 근무하고 있으며 저학력 일수록 집단 이동성이 강해 국졸이 32.1% 중졸 17.4% 고졸 11.8%로 되었다. 취직 방법으로는 70年 이전의 경우 84.6%가 연고, 취직 이던것이 77년에는 72.3%로 낮아 졌으며 취직 동기도 대부분 家計補助的인 성격을 띠고있다 이상 여러 면에서 보듯이 근로자에 대한 인간미 넘치는 한가족으로서의 대우와 이들에게 장래의 희망을 부여주므로서 안정된 양계는 물론 생산성이 높아 지겠으며 일률적인 대우 보다는 근로자 개개인의 형편을 참작하여 종합적인 대책의 수립이 필요하겠다.

7월 1일부터 산란계 사료가 달라진다

농수산부는 배합사료 제조용 동물약품 및

사료 첨가제 사용 지침을 발표하여 이를 금년 7월 1일부터 실시하도록 되었음은 기왕에 여러번 알려드린 바와 같다.

그 자세한 내용과 양축가가 주의해야할 사항은 본문 기사(75p.)참조하시기 바라며 특히 우리가 주의 해야할 것은 산란계 사료에는 항생물질제제, 설파제, 구충제등의 약품이 일체 첨가되지 않는 점이다최근 양계 업계는 규모의 대소를 막론하고 질병 오염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배합 사료에 첨가만을 규제한 것으로 앞으로 부로일러 후기와 산란계에 대한 방역이 더욱 어려워 졌으며 양축가의 번거로움은 물론 방역비 지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養鷄業者도 낮은所得標準率을適用받을 수 있다

양계업의 기본 소득 표준율이 12.5% (1977년)로 결정 되었음은 지난 5월호에 상세히 설명이 되었습니다.

76년도에 12%이던 것이 77년에 0.5%상향 조정되어 소득 표준율이 현실보다 높게 조정된 느낌이 있다는 것도 이제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양계업자가 할일은 지금까지 일률적으로 12.5%의 기본율을 적용 받았

6月的 안테나

으나 앞으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낮은 소득 표준율(이하 낮은율)을 적용받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 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율 보다 높은 소득 표준율(높은율)또는 특수 소득표준율(특수율)을 적용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지면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종합 소득을 부동산 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과 산림소득의 단위(개별) 소득별로 적용을 하는데 477개 업종으로 나누어 각기 기본율을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477개나 되는 많은 업종중 양계업의 12.5%는 상위 순위로 볼때 190위에 해당되어 상당히 소득이 높은 사업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와 친근한 타 업종의 기본율을 보면 배합사로 5.5% 주택 신축판매 12.5% 고기도매 4% 술도매 4~7% 화

장품소매13% 귀금속 소매20% 비어홀16% 기생(妓生)40% 酌婦37% 등입니다

여기에서 축산업의 기본율을 보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낮은 소득표준율〉

낮은율을 적용 받을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부가 가치세 성실 사업자

가. 대상자

부가 가치세 과세 사업자로서 77년 하반기 성실신고 사업자

나. 제외자

생략

다. 계산상의 특례

생략

종 목	77년 기본율	적용범위
낙농및육우 사육	10	우유및 우유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젖소및 젖양을 기르는 낙농업 (낙농 사업체에서 우유를 살균하여 병에 넣어 시판하는 경우 포함) 과 쇠고기를 생산하기 위한 비육우 사육업
양 돈	14	돼지 고기를 생산하기 위한 돼지 사육업.
양 봉	18	꿀을 생산하기 위하여 벌꿀을 치는업
기타가축및 가금사육	1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젖소, 젖양, 비육우, 돼지를 제외하고 고기, 毛皮, 털등을 생산하기 위한 가축 사육업. ○ 고기와 알을 생산하기 위하여 닭, 오리, 거위, 칠면조등을 사육하는 가금 사육업. ○ 누에를 치는 양잠업. ○ 기타의 축산 활동으로서 종축, 종금 사육장, 애완용 동물사육장, 야생 조수류 사육장(수렵용 제외), 실험용 사육장 포함. ○ 축산법에 의하여 허가된 부화업자가 영위하는 가금 부화업

라. 낮은율

기본율의 80% (20% 경감)

2. 부가 가치세 면세 성실 사업자

가. 대상자

부가 가치세 면세 사업자로서 77년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 성실사업자(V.A.T) 과세사업 겸영업자는 면세분에 한함)

나. 제외자

- (1) 자료 과세자(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2항1호 해당자)
- (2) 물가 단속 또는 수입 계산서 단속에 년도중 적발되어 불이익 처분을 받은 자
- (3) 무자료 財貨거래자로 적발된 자
- (4) 법인

다. 계산상의 특례

생략

라. 낮은율

기본율의 90% (10% 경감)

3. 5년이상 계속 사업자

생략

4. 성실보고 회원조합 가입자

가. 대상자

- (1) 성실보고 회원조합 가입자로서 가입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적용
- (2) 성실보고 회원 업종과 기타 업종을 겸영하는 자는 성실보고 업종에 한한다.

나. 제외자

생략

다. 낮은율

기본율의 95% (5% 경감)

5. 금전 등록기 설치 사용자

가. 대상자

- (1) 금전 등록기 설치 사용자로서 사용하기 시작한 달로부터의 수입금액 적용
- (2) 금전 등록기 설치사용 업종과 기타 업종을 겸영하는 자는 금전등록기 설치사용 업종에 한 한다

나. 제외자

생략

다. 낮은율

기본율의 90% (10% 경감)

6. 외화획득 사업자

가. 대상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69조 1항 및 2항에 의 규정하는 다음의 수출 사업과 관광사업 ※ 각 사업의 정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9조 1항 및 2항의 규정을 따른다.

나. 적용대상 금액

생략

다. 제외자

도매 수출업자(기본율 적용)

라. 낮은율

기본율의 70% (30% 경감)

7. 벽지 의료 업자

생략

8. 기타 사업자

6 月의 안테나

생략

9. 직물류 성실수정 보고서

생략

10. 적용상의 특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2개 이상의 낮은율에 해당 될때는 그중 가장 낮은율 하나만을 적용한다.

가. 성실사업자(V, A, T 과세및 면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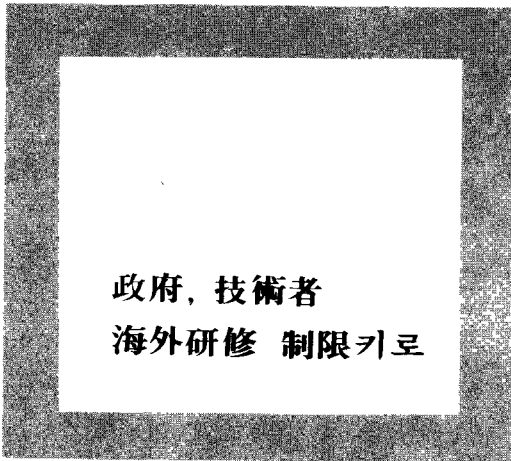
나. 5년이상 계속사업자

다. 외화획득 사업자

라. 성실보고 회원조합 가입자

마. 금전등록기 설치 사용자

이상 낮은율을 적용받는 경우를 열거하였으나 78년도 부터는 성실히 기장을 하여 추계 과세를 받지않는 길만이 절세하는 길임을 알려드리며 협회에서는 우선 여러분이 기장하기 편리하도록 양계 경영 일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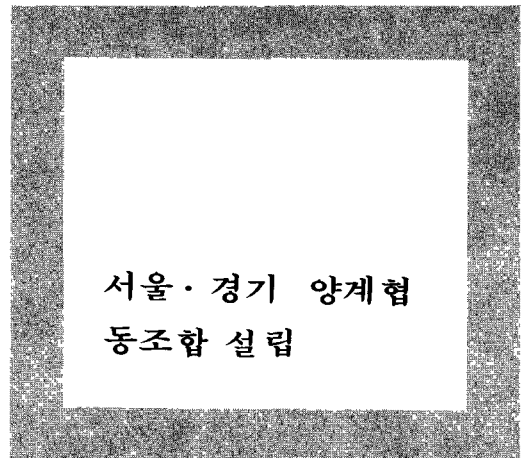


노동청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현 기술자들의 해외연수 제도를 재검토, 앞으로는 중화학 공업을 중심으로한 국가기술

자격 범상의 직종을 제외하고는 개별 단위의 해외 연수를 폐지 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러한 방침은 일부 업체에서 해외 연수를 위장하여 고용 유학을 시키는등 부작용이 크기때문이라고 한다.

또 최근에는 이에 대한 부로커까지 등장하여 물의를 빚는 사례가 많아 이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우리 업계도 종계의 도입과 함께 이들 외국 육종 농장에 많은 분들이 연수를하고 귀국하여 우리 업계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다. 최근에도 호로조(Gunea Fowl)의 도입과 함께 이의 특수 인공수정 방법을 연수하러 출국할 준비를 하고 있는등 새로운 해외 기술을 문헌만으로는 습득 도입이 어려운 우리 업계에는 큰 타격이 아닐수 없다. 단 외국과의 합작회사 기술 제휴자 또는 외국 회사의 국내 지사 및 외국 연구기관으로 부터의 초청은 제외되어 종전과 같이 시행되나 우리 업계에는 해당되는 업체가 몇개 되지 않는 실정이다. 곧 시행될 이번 조치에 해외연수를 계획하고 있는 각 양계장은 계획을 서둘러 선진 외국의 기술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간 3 년여에 걸쳐 서울·경기 동북부 지

역의 대규모 채란업자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던 농협법에 의한 양계협동조합이 드디어 설립되게 되었다.

그간 협동조합의 필요성은 절감하면서도 현재의 축협과의 문제등 제반 여건이 여의치 못하여 지연되어 왔었다.

더 말할것도 없이 덴마크의 발전이 협동조합의 성공으로 부터 왔듯이 우리에게 협동조합의 필요성은 그어느때 보라도 절실한 것이었다. 지금까지 축산협동조합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잡다한 축종이 총 망라되어 여러가지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고 대부분의 축협이 실제 양계인의 참여가 거의 없는상태에서 운영되어 오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같은 축산이라도 축종에 따라 그 성격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서울우유협동조합 같은 양계만의 특수조합을 필요로 하게 되어있다.

그간 생산자의 모임체로 양계협회를 위시하여 각종 계우회 친목회등이 많이 있었으나 경제 업무나 신용업무를 처리할 수는 없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양계산물의 유통 구조 개선이 시급한 이때 생산자와 소비자를 다같이 보호할 수 있는 협동조합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하겠다.

이번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양계협동조합은 창립총회를 거쳐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립되게 되는데, 법적인 각종 혜택은 물론 방위세를 제외한 모든 조세에 대한 감면 혜택도 받게 되어 있다.

한마디로 현재 서울우유협동 조합등을 연상하면 쉽게 이해가 되겠다. 여기에서 간단히 이번 설립되는 양계조합을 소개하면 청량리 한국계우회 회원을 중심한 채란양계업자 천호동의 천호계우회를 중심

한 양계업자 제일축산의 윤도진사장등 대규모 채란양계업자 62명이 발기인이 되어 지난 5월 13일 일간지에(한국일보등)가칭 서울경기 양계협동조합 설립준비회 개최공고를 하고 78년 5월22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신문회관 3층 회의실에서 발기인 62명중 61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관할구역은 서울시전역 경기도 광주군 양주군 용인군 이천군 여주군 성남시 등이며 회원자격은 산란계 500수이상 육계 1,000수이상 사육경영하는자이며 이날 창립 준비 위원장으로 제일축산의 윤도진 사장을 선출하고 정관, 사업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결의하고 창립총회를 78년 6월 7일 같은 장소인 신문회관에서 오전 10시30분에 개최하기로 결정 하였다. 이번 발기인의 대부분은 채란양계 업자로 우선은 계란의 소비자 방문 판매등이 이루어져 계란 유통의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가 여기서 새로 발족하는 조합에 바라는 것은 아무쪼록 지금의 조합을 통한 생산자의 단결과 농촌운동을 하는 정신이 변하지 말기를 바라며 이것이 시발이 되어 서울 경기의 일부 지역에 국한하지 말고 전국적인 조직으로 확대되고 채란·육계 모든업자가 참여하여 양계 산업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되어 지기를 바란다

이번 양계조합은 구매사업(사료, 약품, 초생추, 기타기자재)은 물론 판매사업에도 주력하겠지만 발기인 대부분의 성격에서 나타났듯이 계란에만 그치지 말고 시급한 닭고기 유통도 개선하여 앞으로 양계는 양계조합회원이 되지 않고는, 양계조합을 통하지 않고는 양계를 하기 어려운 양계사의 새로운 page가 시작되기를 바라며 그간 조합설립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농수산부 축산국 관계관과 발기인 여러분계 양계인들의 따뜻한 성원이 있어야 하겠다.